

“음식으로 재난 위로”... 안유성 명장의 따뜻한 연대

국가 참사에 지속적인 음식 봉사 “봉사의 원동력 어머니의 가르침” “참사 피해자들에 ‘응원 메시지’”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요리사’로 유명세를 얻은 대한민국 제16대 요리명장인 안유성 가매 대표가 변함없는 선행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안동 산불 이재민을 위해 전북죽 800인분을 만들어 직접 전달하는가 하면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는 김밥·닭죽·떡국 등을 준비해 식사를 챙기기도 했다.

또 참사 현장 수습을 위해 애쓰는 소방관과 경찰, 군, 과학수사관 등 관계자들을 위해 직접 끓인 나주곰탕 500인분을 전하는 등 음식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안 명장은 지난달 30일 안동 산불 이재민 임시 숙소인 안동체육관에 방문해 전북죽 800인분을 전달했다. 앞선 같은달 27일에도 김밥 500인분과 닭죽을 준비해 식사를 챙긴 바 있다.

안유성 명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재해 등 문제가 생기면 남을 돕기 위해 하나로 뭉치는 DNA가 있는 것 같다”며 “저는 요리를 하는 사람이고 재능이 요리니까 그 재능을 발휘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준비했다”고 경북 대흥 산불 참사에 음

식봉사를 나섰던 계기를 설명했다.

안 명장은 이어 “재난을 당하신 분들이 드시는 거라도 불편함 없이 드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전달했다. 처음에는 김밥 500줄, 전북죽의 경우 조혜경 전남 1호 명장과 함께 준비했다”며 “속이 따뜻하고 편한 음식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전북죽을 준비했는데 어르신들이 두 세 그릇씩 드실 만큼 이만한 음식이 없다”고 덧붙혔다.

안 명장의 선행은 이번 산불 참사에만 이뤄졌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지역의 아픔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참사 다음 날인 30일 손수 만든 김밥 200인분을 들고 참사 유가족들에게 전달했고, 새해 첫날에는 떡국을 나누기도 했다. 지난 1월 5일에는 현장 수습을 위해 애쓰는 소방관과 경찰, 군, 과학수사관 등 관계자들을 위해 직접 끓인 나주곰탕 500인분을 전했다.

안 명장은 제주항공 참사 봉사와 관련해 “광주는 한, 두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이다. 지인도 유명을 달리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마치 당시의 상황은 5·18 때 어머니들이 시민군들을 위해 준비했던 ‘주먹밥’을 떠올리게 했다. 나쁜만 아니라, 지역의 봉사자들은 돼지고기와 떡갈비, 김치 등을 준비해 왔고, 유명인들



지난달 30일 대한민국 제16대 요리명장인 안유성 대표가 안동 산불 이재민 임시 숙소인 안동체육관에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유성 명장 제공

도 배식 봉사에 참여해 따뜻한 연대를 느낄 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이처럼 안 명장이 손발 벗고 나서 ‘음식

봉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는 ‘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철학과 25년 전 음식 재능기부로 느꼈던 ‘배

품의 희열’을 꼽았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봤던 것이 식당을 하셨던 어머니의 선한 영향력이었다. 무슨 일을 하던 조금 더 베풀자는 어머니의 철학을 배웠다”고 말했다.

또 그는 25년 전에 처음 시작했던 음식 봉사를 기억하면서, 겉멋이 아닌 진정한 봉사 정신을 배워 봉사의 기쁨을 느꼈다고 전했다.

안 명장은 “베풀면서 주는 마음의 희열, 그 희열을 요리하는 동료 요리사들과 느끼니 중단을 못하게 됐다”며 “처음 했던 봉사는 동료 요리사들과 장애인들에게 했던 봉사인데, 함께 서빙하고 부딪히면서 봉사자들과 장애인들이 헤어질 때 부둥켜안고 헤어지지 않으려 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고 봉사의 기쁨을 느꼈던 첫 순간을 전했다.

안 명장은 “음식은 힘든 분들에게 전하는 ‘응원 메시지’와 같다”고 음식 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아직까지 저희 식당에 찾아와 현장에서 먹었던 음식을 잊지 못해,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손님들이 많다”며 “음식 전달을 해주며 음식 자체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참사를 겪은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응원에 주는 것, 그걸로 버텨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8일 오전 9시58분께 광주 북구 누문동의 양동시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와 1톤 트럭, 시내버스가 잇따라 부딪히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양동시장 인근서 3중 추돌... 인명피해 없어

8일 오전 9시58분께 광주 북구 누문동의 양동시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와 1톤 트럭, 시내버스가 잇따라 부딪히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개 차선 중 3개 차선이 한때 통제되면서 주변 도로에 일시적인 정체가

빚어졌다. 소방당국의 현장 확인 결과, 각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탑승자 모두 병원 이송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수능 모의고사 6월 4일로 연기

방학 비롯한 학사 일정도 변경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와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일정 변경이 이뤄지면서 각 학교에서는 방학을 비롯한 학사 일정 변경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결정함에 따라, 같은 날 실시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고3) 및 전국연합학력평가(고1·2)’를 다음날인 6월 4일로 하루 연기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능 6월 모의평가는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전에 이뤄지는 평가원의 모의평가이다. 고3 수험생에게는 수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험이다.

이에 따라 수능 6월 모의평가의 원서접

수 및 변경 기간도 4월 11일까지 1일 연장된다. 기존에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으로 6월 4일 시험 응시자로 변경된다. 성적 통지일은 7월 1일로 종전과 동일하다.

교육부는 “국가적 일정한 대통령 선거가 지정된 만큼,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일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학사 일정 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일이 국가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학생들의 총 수업 시수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학사 일정 변경은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각 학교들은 1~2주 내로 운영위를 열고 일정 변경에 나설 전망이다. 정유철 기자

‘윤석열 파면’ 전한 전남일보 호외 ‘인기’ 지속

은암미술관 ‘탄핵정국 전시 활용’ 중고거래 플랫폼 ‘호외 구합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신속 보도한 전남일보의 ‘윤석열 파면’ 호외가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본보는 4일 오전 11시22분 현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호외를 제작해 본사 직원들이 5·18민주광장과 광주송정역 등지에서 직접 배포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승리’를 기록한 호외를 평생 간직하겠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들었다.

광주지역 미술계도 전남일보 호외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광주 동구에 위치한 은암미술관은 이날 본사에 호외를 요청하며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을 기릴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간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종기 은암미술관장은 “앞으로 윤석열 파면과 관련해 자유·평화를 수호한 지난 탄핵정국을 되짚는 전시를 기획할 예정”이라며 “전남일보의 호외를 전시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외의 인기는 오프라인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8일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는 본보 호외를 구하기 위해 ‘윤석열 탄핵 4.4 호외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특히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에서 호외는 이미지가 돼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인스타그램에는 스캔본을 활용한 스토리, 게시물이 잇따랐으며, 본보 SNS 계정으로 직접 연락한 정모씨는 “타 지역에 사는 광주 출신인데 전남일보 호외를 꼭 가지고 싶어 연락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PDF 말고 실물을 원한다. ‘호외 에디션’을 공식적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윤석열 파면’ 헤드라인이 적힌 본보 호외가 윤상원 열사를 기리기 위한 ‘꽃 피우는 윤상원’ 작품 앞에 놓여있다. 은암미술관 제공

이어 X(구 트위터)에 호외를 게시한 한정우씨는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만든 호외 에디션은 더 특별하다. 특히 전남

일보가 너무 탐나다”며 “이런 매력적인 신문이 사라져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정준 기자